

사라지는 도마다리 동네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절기 따라 물처럼 살던 송정마을

송정마을은 물이 많은 곳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곳을 도마다리라고 불렀다. 도마는 칼질할 때 밑에 대는 넓적한 판이다. 맨땅의 시골길은 언제나 질척거리는 흙탕이라 몇 걸음 옮기려면 바짓가랑이부터 걷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딛고 다니기 좋도록 나무판을 곳곳에 깔았다. 물을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들에 나무판 징검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도마다리동네라 하여 도마다리, 도마다리 하고 부르고, 한편 '다리'를 한자로 바꾸어 도마교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송정마을은 낮은 뒷동산을 두르고 그 안에 펼쳐진 분지형의 동네다. 집 배경으로 삼은 뒷동산에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언덕을 등에 대고 몇 채씩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은 길을 따라가며 마을을 만든다. 대문은 모두 마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6층

전 화 031-390-0505

팩 스 031-390-0508

이메일 gpagenda@hanmail.net

이러한 송정마을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이 뒤집어지기 전에 이 터를 지켜온 것은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이 되었다. 허



물고 다시 만드는 것은 간편하지만, 사람의 터에 대한 역사가 지워져서 시멘트 건물만 잔뜩 들어선 공간밖에 남지 않는다. 송정마을의 400살 먹은 은행나무는 물건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을의 격을 의미하는 문화다. 그런 문화의 맥을 찾아 마을의 격을 살려야 시멘트 건물에도 깊은 숨결이 배어들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살아나게 된다. 사람도 자연처럼 스밀 수 있는 가장 편한 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내용

우리는 송정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고 알리고 싶었다. 우선 송정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 해에는 무던히 송정마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송정마을의 모습을 절기에 맞춰 기록하고자 했고 조사한 것들을 그린맵으로 기록했다. 우리의 손으로 그린 지도와 아이콘을 활용하여 송정마을 그린맵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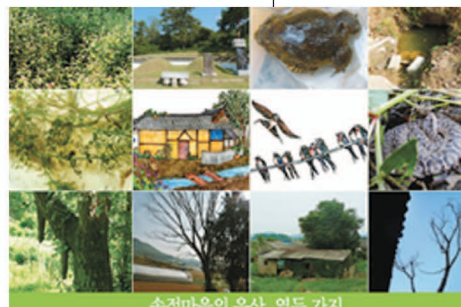
두 번째 해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린맵을 활용해 송정마을에서 다양한 교육을 했다. 1년간 계절에 따라 알록달록하게 변해가는 송정마을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송정마을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다. 송정마을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들, 이제 곧 사라질 송정마을의 가옥들, 열두 가지 유산을 1년에 걸쳐 조사·기록하고 책자로 펼쳐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없었다면 송정마을은 아스팔트 아래로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송정마을의 개발 방향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 번째 해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송정마을을 알리고 싶었다. 그 해는 군포시를 이끌어갈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가 있

었다. 우리가 느끼는 송정마을의 소중함을 그분들도 함께 느끼게 하고 싶었다. 두 번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고 송정마을의 올바른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했다. 후보 전원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송정마을의 소중함을 그들에게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사라져 갈 송정마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래 기억하고자 사진으로 남겼다. 3년에 걸친 송정마을 그린맵 활동에서 얻어낸 다양한 사진들을 군포시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송정마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작은 사진전을 개최했다.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 사진을 바라보고 웃음 짓고 송정지구 보전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 우리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평가와 과제

송정마을의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장비가 첫 삽을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방적으로 송정마을을 개발하려는 시도였다. 우리는 이 공사 시작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 결과 군포시, LH공사, 송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땀방울이 대체 습지 마련, 400년 된 은행나무를 옮겨 심는 것 등의 합의를 이뤄냈고, 지속적으로 논의 과정을 만들고 있다. 사라져갈 송정마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송정마을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빈집들만이 자리해 곧 마을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한 송정마을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개발될 송정마을에서도 여름밤이면 땀방울이 울음소리를 400년 된 은행나무 아래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송정마을의 역사, 의도, 가치